



서가 풍경

## 시의 운율과 건축철학이 함께 호흡하는 공간

건축발전연구소 전진삼 소장의 서가

건축발전연구소 전진삼 소장(41)의 집 현관문을 열자 아담한 거실이 눈에 들어온다. 친절한 주인내외의 안내를 받으며 잠시 거실에 앉아 있 으러니 베란다에서 누군가 손짓을 한다. 슬며시 등 뒤로 눈길을 주니 베 란다 천장에 늘어진 담쟁이 넝쿨이 보인다. 연초록 잎사귀들이 창으로

들어온 바람을 맞으며 연신 손사래 친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은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베란다를 본 순간 새삼 그가 건축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 전소장의 서가는 소탈했다. 창가엔 책상 두개가 나란히 있고, 나머지 공간엔 책장이 빼곡이 들어서 있었다. 책장 하나는 그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듯 시집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성복의 《링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진이정의 《거꾸로 선 꿈을 위하여》, 조정권의 《산정모지》가 눈에 띈다. 그 옆에 세월의 무게가 각질처럼 입혀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도 있다. 그에게 시는 건축보다 오랜 친구다. 고등학교 때 습작을 시작했고, 대학 때는 '문학동인반'이란 서클에서 활동했다. 그 시절 특히 한하운의 시들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다 대학 2학년인 1980년 《시문학》에 《참회》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 건축에 대한 관심도 기술적인 측면보다 인문학적인 배경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가 건축가가 되지 않고 건축비평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축 관련 책들은 대부분 그의 사무실에 있다고 한다. 그래도 가운데 책장은 건축을 위해 할애했다. 건축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건축》이란 두툼한 책과 《추상과 감흥》 《근대 건축운동》 《건축행위의 연구》 등의 이론서들이 보인다. ■ 최근에 보는 책들은 따로 정리돼 있다. 《신과학 산책》 《우주의 역사》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카오스에서 인공지능 명으로》 《인간 계몽 프로젝트》 《가이아》 《한단고기》 《한국의 원시사상》 등은 그의 관심이 신과학 이론과 원시사상에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의 건축관이 궁극했다. 그는 건축과 시는 본질적으로 통한다고 말한다. 시가 그러하듯 건축도 이름 없는 사물에 존재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처럼 짜 맞춰진 공간이라도 그 속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변한다고 말한다. 생활과 괴리된 공간, 한군데라도 삶의 호흡이 닿지 않으면 괴잉 공간이고, 의미 없이 죽은 공간이란다. 그래서일까, 그는 25평 남짓한 지금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적은 없다고 한다. ■ 요즘 그는 기획자로도 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가 기획한 건축프로그램만도 '건축백일장'

전진삼 소장은 1960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1980년 《시문학》에 《참회》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월간 《공간》 편집장으로 일했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월간 《건축인 POAR》 상임편집위원 겸 주간으로, 또 건축발전연구소 소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에밀레 에밀레라》 《부채가 있는 아침》 등의 시집과 건축평론집 《건축의 발견》 《건축의 불꽃》 등을 펴냈다.



전진삼 소장의 서가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인 POAR》부터 최근에 자주 뒤적이는 신과학 이론서들, 그리고 건축 관련책들이 한곳에서 숨쉬고 있다. 《天符經源典(천부경원전)》은 그가 가장 아끼는 책이다.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의 지적 체계를 아우른 책인데, 그 속에 원시창조의 순환논리와 현대 건축학이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미학이 담겨 있다고 한다(위).

지금까지 그가 지은 책들, 시집이 두권, 건축비평집이 두권이다. 그의 첫 시집 《어밀레 에밀레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묶었다. 그래서일까, 어머니께 바친 이 시집의 '서시'는 <참회>였다. 최근에 펴낸 《건축의 불꽃》은 1990년대 후반 한국 건축계와 건축물에 대한 비평을 모았다. 《건축의 발견》에 이은 그의 두번째 건축비평집인데, '건축이웃들'인 일반인들에게 건축의 존재를 폭넓게 환기시키고자 썼다고 한다(아래).



'건축트레킹' '건축민박학교' 등이 있다. 책장 한편엔 그가 기획·발간하는 <건축의 바다 총서>가 있다. 이 시리즈는 건축가와 사진가 그리고 비평가 등 세사람이 한조가 돼 한권의 책에 하나의 건물을 담아내고 있다.

■ 취재를 마치고 막 서가를 나서는데 들어설 땐 보이지 않던 '색색의 화려한 표지'를 걸친 이채로운 책장이 눈에 띈다. 아들과 함께 쓰는 방이어서 그런가, 그 독특한 색채의 주인공들은 동화책이었다. 그는 앞으로 그 책들을 읽을 생각이다. 무한한 상상력이야말로 자신 안의 우주를 깨닫는 참된 수단이고, 생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란단다. — 박옥순 기자



나에게 책이란...

시간을 먹는 기계,  
 시간을 쌓아놓은 창고,  
 시간이란 이름의 무희,  
 시간 디자인의 다른 이름,  
 언제, 어디서든 시간의 소리를  
 들려주는 대기와의 같은 것

2001. 9. *고소란*

그의 책상에는 낡고 오래된 재봉틀이 하나 있다. 1989년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던 재봉틀인데,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걸 차마 버릴 수 없어 십년 넘게 간직해오고 있다고 한다. 재봉틀 앞에 그가 요즘 즐겨 듣는 음반들이 보인다. 에릭 클랩톤의 <Pilgrim·Eric Clapton>,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BUENA VISTA SOCIAL CLUB>, 그리고 포르투갈의 민속음악 'Fado'를 수록한 <Misia>(위).

몇 해 전 심은 담쟁이 두 뿌리가 어느새 배란다 천장을 뒤덮고 있다. 싱그러wie 출렁이는 갈매 잎사귀들은 마치 자연을 그대로 집안에 옮겨 놓은 듯하다. 그는 여기서 창밖을 바라본다. 아파트라는 구획된 구조 안에서 경계 넘기를 시도한다. 그는 건축이 사람들 사이를 간섭할 때, 막혀 있는 현대인의 생활터전이 뚫린다고 한다(가운데).

그는 1998년부터 인천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축백일장'을 기획·주관해오고 있다. 문예백일장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건축백일장은 가족들이 한팀이 돼 폐품을 활용해 주제에 맞는 건축 모형을 만드는 행사다. 사진은 지난해 그의 부인과 아들이 참가해 만든 작품 '벌들이 쉬어가는 집'이다. 건축가이자 시인인 그의 가족답게 작품에 문학적인 감수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아래).

